

동사이동에 대한 매개변인 접근법: 초기중세영어 동사구어순을 중심으로*

김대익
(영산대학교)

Kim, Dae-Ik. (2020). Parametric approaches on V-movement based on verbal orders in Early Middle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8(4), 29-50.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the explanatory power of parametric approaches on verbal orders between V and T in Early Middle English, and choose which approach might be not only described but explained in the optimal way in terms of the Minimalist program framework. In Government and Binding (GB) and early minimalism language, variation can be accounted for by language specific and language-independent parametric approaches. Thus, it is revealed through GB and Minimalism that a number of language specific parametric approaches are introduced to explain the verbal orders between V and T. However, according to the central tenet of recent minimalism (after Chomsky, 2005), these parameters coupled with Universal Grammar (UG) should be driven to be decomposable into a unified one which can account for every aspect of the verbal orders between T and V. In this paper I discuss how each parametric approach can deal with the Early Middle English verbal orders in conformity with the tenet of Minimalism and conclude that the Category-Specified approach, in which the T and V of UG are under-specified to Category is the best one to deal with the Early Middle English verbal orders, allowing grammar to account for language variation without appealing to the language specific parameters of UG.

주제어(Key Words): 초기중세영어(Early Middle English), 동사어순(verbal orders), 매개변인(parameter),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범주지정(category-specified), 동사이동(verb movement), do삽입(do-support)

* 이 논문은 2020년 하반기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작성된 논문이다. 또한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1. 머리말

생성문법에서 언어변화란 매개변인으로 나타나며,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 안에 포함된다고 가정된다(Chomsky, 1981). 그런데 최소주의로 들어오면서 보편문법은 자연법칙에 따라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중복이 없어야 하므로, 그 안에 존재하는 매개변인도 최적화되어 중복적 설명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생성문법과 최소주의에서 동사이동(V-to-T)을 통해 언어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매개변인 접근법들이 주장되었다(2장 참조). 본 연구는 어떤 매개변인 접근법이 다양한 동사이동을 보여주는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지 판별하고 나아가 해당언어에만 적용되고, 중복된 설명을 하는 매개변인 접근법들을 배제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는 어순연구에서 동사와 목적어 관계에 따라 OV/VO어순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영어사 어순은 고대영어의 OV어순에서 현대영어의 VO어순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세영어는 VO어순과 OV어순이 같이 나타나는 시대로 간주된다. 하지만 어순연구에서 OV/VO같은 목적어와 동사관계에 의한 구별은 문제가 있다(2.1항 참조). 특히 목적어가 대명사나 부정대명사, 양화사인 경우 단어 자체의 이동이 손쉽게 되므로 올바른 VO/OV어순을 포착할 수 없다(Kroch & Taylor, 2000).

그래서 본 연구는 동사구 어순을 OV/VO어순으로 구분하지 않고 V와 T와 관련된 어순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런 동사구의 V와 T의 관계어순에서 그동안 제기된 매개변인 접근법들 즉 의미역차단 매개변인, AGR¹ 매개변인, 외현적/내재적 매개변인, T의 강/약매개변인, 범주지정 매개변인 등등이 V와 T의 모든 관계어순을 보여주는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어떤 매개변인 접근법이 가장 잘 설명하는지 가리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1장은 서론이며 2장은 어순연구와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과 매개변인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3장은 매개변인 접근법들이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을 잘 설명하는지 비교분석하며 4장은 범주지정 매개변인과 그 비교표를 통해 범주지정 매개변인이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동사구 어순과 매개변화

2.1. 동사구 어순 연구방법

영어사의 동사구 어순은 언제나 목적어(O)와 관련하여 동사의 위치를 파악해왔다. 즉 핵 매개변인(head directionality parameter)¹⁾에서 나타난 동사와 목적어의 선행관계에 따라

1) 핵매개변인(directionality parameter): $X' \rightarrow X YP$

$X' \rightarrow YP X$ (Roberts, 1997, p. 397)

OV/VO어순으로 분류하여 (1)처럼 영어사의 어순을 설명하여왔다(Traugott, 1972; Canale, 1978; Lightfoot, 1979, 1992; Bean, 1983; Kemenade, 1987; Denison, 1995; Pintzuk, 1999).

- (1) a. 고대영어: OV어순
- b. 중세영어: OV어순 또는 VO어순 공존
- c. 현대영어: VO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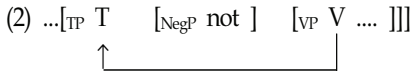
영어사 어순이란 고대영어의 OV어순에서 현대영어의 VO어순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세영어는 VO어순과 OV어순이 같이 나타난다고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OV/VO어순의 구별방식은 이후의 선행연구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한다. 고대영어에서 OV어순을 나타내는 구문 중 목적어가 대명사로 사용되면, 80% 이상 OV어순이 된다. 이 이유로 Kemenade (1987)은 고대영어 대명사는 접어(clitic)의 성향이 강해, 언제나 동사와 함께 이동하는 성격이 있어서 80%이상의 OV어순이 되므로 고대영어 기저어순을 반드시 OV어순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런 대명사 목적어 외에, 목적어가 *no*와 결합된 부정대명사이거나 *any*, *every*와 결합한 양화대명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스로 이동하려는 성향을 가진 어휘들이어서, 고대영어 구문에서 부정대명사가 목적인 경우 80%가 OV어순을 보여주고, 양화대명사가 목적인 경우 60%가 OV어순을 보이고, 일반목적어의 경우 약 50%만이 OV어순이다 (Kroch & Taylor, 2000, p. 159). 그래서 어순연구에서 OV어순이라고 해도 실제로 OV어순인지 다시 점검해야한다. 본 연구는 동사구 어순에서 목적어를 제외한 V와 T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사이동은 V(R)-to-*v*이동, *v*-to-T이동, T-to-C이동이 있다. 여기에서 V(R)-to-*v*이동은 범주가 없는 어근 V(R)가 동사가 되는,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이동으로 변별성이 없기에 어순연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T-to-C이동은 주로 CP의 Spec에 *wh*-어나 일반 어휘범주가 이동하고(V2이동) 이후 T-to-C이동이 되므로 동사 이동만을 연구대상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v*-to-T이동을 중심으로 V와 T의 관련성에 입각해 동사구 어순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V와 T의 관련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사구 어순연구에서 VO와 OV어순 구별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고대영어 어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초기중세영어의 V와 T의 관계를 통한 동사구 어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최소주의에서 경동사 *v*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Chomsky(2013)의 개념에서 V-to-*v*이동을 하면, 경동사가 V로 바뀌므로 설명상의 편의로 *v*-to-T이동을 V-to-T이동으로 기술한다.

2.2. 초기중세영어의 V와 T의 관련성

동사이동은 동사가 V에서 T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이동의 확실한 보기는 부정어 not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부정어는 언제나 TP와 vP(VP)사이에 위치하므로(Pollock, 1989), 동사가 부정어의 왼쪽에 위치하면 동사가 T로 이동되며, 부정어의 오른쪽에 있으면 동사가 V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동사 V(2)가 부정어 not을 건너뛰어 T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런 V-to-T이동의 관계를 초기 중세영어 동사어순에서 부정어 not의 위치와 관련하여 잘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굴절형이 붙어있는 굴절동사(inflected V)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동사원형(infinitive)유형이다. 이런 두 가지 동사유형에서 부정어 not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형태의 동사어순들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사용된다(Visser, 1969, p. 1529-1536). 여기서 spoke는 굴절동사이고, speak는 동사원형으로 사용된 일반동사이다.

- (3) a. spoke not 유형 (굴절동사 V + not)
- b. not spoke 유형 (not + 굴절동사 V)
- c. did not speak 유형 (did + not + 동사원형)
- d. did speak 유형 (did + 동사원형)

(3)의 동사어순들은 초기중세영어의 동일한 시기에 사용되고, 그 의미적 차이는 구별되지 않고, 그냥 운율적 이유나 스타일에 치중되어 두서없이 사용되었다고 한다(Visser, 1969, p. 1534). (3a) ‘spoke not’ 유형은 다음과 같다.

- (4) ‘spoke not’ 유형
 - a. I herde nott from you syns. (*Paston Letters* 450.602)
 - b. but he spack not one worde. (*Caxton's History of Reynard the Fox* 52.278)
 - c. Wepyng and teres comforteth not dissolute laghers.
(*N Love the Myroure of the Blessyd Lyf of Jesu Christ* 1400-50)

(4)의 굴절동사들(herde(4a), spack(4b))와 comforteth(4c)는 일반동사이므로 의미역 기준(θ -criterion)에 따라 원래 V에 위치하다가 not의 왼쪽인 T로 이동하였다. 다음 (3b)인 ‘not

spoke'(not+ 굴절동사 V)유형이다. 이 구문들은 1500년까지 조금씩 사용되다가 1500년 이후가 되면서 사용빈도가 늘어나 셰익스피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이다. 1700년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3c)의 유형으로 바뀐다(Visser, 1969, p. 1532).

(5) 'not spoke' 유형

- a. though thei not rede in the Bible oonly forto it leerne.
 though they not read in the Bible only to it learn
 'though they do not read in the Bible only to learn it'
 (c1449 Pecoock Repressor XI)
- b. Thairwith he nocht growit.
 'At this he not shrunk' (i.e. in fear)
 (c1448 the Buke of the Howlat, 7; Roberts, 1993, p. 252)

(5)의 굴절동사 rede(5a)와 growit(5b)는 부정어 not의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V-to-T이동하지 않았다. 이 유형은 굴절동사임에도 불구하고 V-to-T이동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로 'did not speak'(did+not+동사원형)유형이다. 이 어순은 부정어 not이 없는 'did speak'어순과 거의 동시에 사용되었으며 강조의 기능이 없는 do이다. 또한 부정어 not뿐만 아니라 never, often, always 등등의 부사들과도 같이 많이 사용된 유형이다. 이 유형은 15세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현대영어의 올바른 유형으로 정착되었다(Visser, 1969-74, p. 1529).

(6) 'did not speak' 유형

- a. a mam þat with him did not fi3te. (*Tales of Beryn*, I. 558)
- b. God this day dyde nat consent to folowe yourwyll. (Berner, *Froiss* I, 384)
- c. What meanyth that ye dyd not syng? (*Wyt & Science*, I. 442.589)

(6)의 동사들(fi3te(6a), consent(6b), syng(6c))은 부정어 not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굴절된 동사들이 아니라 동사원형으로 사용되며 조동사 did가 T에 do삽입되었다. 넷째로 평서문에서 사용된 'did speak'(did+동사원형)유형이다.

(7) 'did speak' 유형

- a. They worschipped the sonne whanne he dede arise.
 'They worshipped the sun when he did arise.' (Roberts, 1993, p. 288)
- b. A great lord somtyme dyd dwell.
 'A great lord once did live.' (*The Knight of Curtsey*, 1480; Roberts, 1993, p. 288)

c. Pers stode & dede beholde.

‘Pers stood and did behold.’ (Handl S 5711; Gelderen, 1983, p. 61)

d. And so thei dede bothe deseieue ladies and gentilmen.

‘and so they did both deceive ladies and gentlemen.’

(c1450 Knt. Your-L 2.24; Roberts, 1993, p. 283)

(7)은 긍정문에서 동사원형의 일반동사(arise(7a), dwell(7b), behold(7c), deseieue(7d))가 T로 이동하지 않고 대신 T로 do동사가 과거시제와 결합하여 did로 do-삽입된 구문이다. 그래서 (7)에서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에서 동사이동과 do 삽입현상은 부정어 not때문에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사구 어순의 차이를 그동안 생성문법 및 최소주의의 기존연구에서 매개변인에 의해 설명된다.

2.3. 매개변인과 어순변화

생성문법 및 최소주의에서 어순변화와 관련된 것은 매개변인 변화(parametric variation)이다.³⁾ Batty & Roberts(1995)은 언어변화(language change)란 근본적으로 매개변인이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 한다.⁴⁾ 생성문법에서 이 매개변인은 Chomsky(1981)의 원리와 매개변인 접근법(principle and parameter approach)에서 다루어졌다. 이 접근법은 또한 Government and Binding(GB)라고도 하는데 언어이론에서 중요한 문제인 어린이들이 언어자료(linguistic data)가 빈약함에도 어떻게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각각 다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냐는 ‘플라톤의 문제(Plato’s problem)’가 여기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이론이 원리와 매개변인 접근법으로 기본 논리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각각의 언어들에 관계없는 일련의 언어원칙들을 부여받고, 언어변화에 따른 일련의 매개변인을 가진다고 한다. 그 당시에 제안된 매개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 (8) a. 핵매개변인(Head parameter): [head initial] or [head final] (Stowell, 1981; Huang, 1982)
- b. 비주어 매개변인(Null subject parameter) (Rizzi, 1982)
- c. 인접성 매개변인(The adjacency parameter) (Stowell, 1981)
- d. 의문사 이동매개변인(Wh-movement parameter) (Huang, 1982)
- e. 비정형 매개변인(Non-configurationality parameter) (Hale, 1983)
- f. 복합합성 매개변인(The Polysynthesis parameter) (Baker, 1995)

3) 한국어의 매개변인은 J.-S. Lee(2015), 불어의 매개변인은 김신호(2019)를 참조 바람.

4) Language change is essentially a random ‘walk’ through the space of possible combination of particular settings (Batty & Roberts, 1995, p. 11).

(8)과 같은 매개변인들로 각 언어상의 차이를 불러온다고 간주된다. (8a)는 핵매개변인으로 고대영어는 OV어순이고 현대영어는 VO어순이 되며, 영어는 VO어순이지만, 한국어는 OV어순으로 그 어순상의 차이를 설명한다. (8b)인 비주어 매개변인은 Pro탈락(pro-drop) 매개변인이라고도 하는데, 구문의 주어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매개변인으로,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나타나지만, 이탈리아어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차이는 바로 비주어 매개변인의 작동여부이다. (8c)인 인접성 매개변인은 격을 부여할 때, 격부여자와 격수혜자가 반드시 인접할 것을 요구하는 매개변인이다. 예로 영어는 동사와 목적어에서 인접성 매개변인이 반드시 지켜지나 불어나 이탈리아어는 그 사이에 부사가 위치해도 정문이 된다. (8d)의 의문사 이동 매개변인(wh-movement parameter)은 wh-어가 문두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개변인으로 영어의 wh-어는 이동하지만 중국어의 wh-어는 이동하지 않는다. (8e)의 비정형 매개변인이란 영어는 논항위치가 동사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배되는 정형(configurationality)언어이지만, Walpiri어의 논항위치는 동사와 구조적 관계가 아니라 동지시(coindexing)로 지정된다. 그래서 영어와 같은 [-] 비정형(non-configurationality)언어는 어순이 고정되지만, Walpiri어와 같은 [+] 비정형언어의 어순은 자유롭다. (8f)의 복합합성 매개변인이란 동사의 굴절어미로 논항이 표현되는 언어에 대한 매개변인이다.⁵⁾

그런데 (8)의 매개변인들은 보편문법 안에 포함된다고 가정된다. 보편문법이란 어린이들이 언어를 획득할 때,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부분이며 최소주의에서 언어구조(language structure), 의미역기준(θ -role criterion), 병합(merge), 범주자질(categorial feature), 등등의 부분(Holmberg & Roberts, 2014, p. 63)으로 후천적으로 배울 수 없는 요소들이다.⁶⁾ 그 외로 보편문법에서 \pm 값(value)지정되지 않은 매개변인들이 존재하고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pm 값(value)을 정하면서 각자 자신의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매개변인들이 보편문법 안에 포함되면, 보편문법이 너무 커지고 조잡해진다는 것이다. 최소주의에서 보편문법이란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기능이므로 자연법칙에 따라 조잡하지 않고(elegance), 간단하고(simple), 간결하게(non-redundancy)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보편문법에 (8)과 같은 많은 매개변인들이 존재하면 그만큼 언어이론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그래서 Borer(1984)는 매개변인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 모든 매개변인은 어휘에 한정하며 매개변인 변화도 (굴절)어휘의 차이점에 두었고 굴절어휘를 나타내는 기능범주의 차이에 따라 언어변화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Chomsky(2014)에서도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

5) 호주의 Tiwi어(Hornsby, 2014, p. 591)

Pitiwuliyondjirrurimpirrani

Pi-ti-wuliyondji-rrurimpir-ani.

3PL-3SG.FEM-dead.wallaby-carry.on.shoulders-PST.HABIT

‘They would carry the dead wallaby on their shoulders.’

6) 최근의 최소주의 보편문법개념에 대해서는 이정식(2016)을 참조바람.

3. 동사이동의 매개변인

3.1. 최소주의의 매개변인 발생위치

자연적 설명을 할 때 모든 조건이 동등하면, 가장 쉬운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이란 원칙이 있다. 최소주의도 가장 간단한 설명이 옳다는 전제 아래 보편문법의 크기와 선택(option)을 최소화시키면서 최소주의의 매개변인은 Chomsky(2005)의 언어구상(language design)의 3가지 요인(the three factors)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다(Holmberg & Roberts, 2014).

- (9) F1: the genetic endowment, universal grammar(UG)
- F2: the environment: Primary Linguistic Data (for language acquisition)
- F3: General principles of computation and cognition (the 3rd factor)

(9)의 F1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언어능력이고, F2는 언어 환경이고, F3은 언어를 생성하는 처리능력이다. 이러한 F3의 언어처리능력은 제 3의 요인(the 3rd factor)으로 불리는데, 논리적 추론(logical reasoning)이나 연산의 효율성, 최소성(minimality)과 조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중복이 없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general law of nature)을 따른다(Huang, 2014). 이런 (9)의 구조에서 보편문법에 속한 매개변인은 다음 두 가지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Chomsky(2001, p. 9)에 따라, 생성문법과 최소주의에서 언어상의 차이는 매개변인 변화(parametric variation)이며 매개변인 변화는 어휘부와 굴절과 관련된 범주에만 국한된다(Borer, 2014).⁷⁾ 따라서 언어상의 변화는 동사가 굴절형으로 입력되는지 아니면 동사원형으로 입력되는지를 나타내는 어휘부나 동사 굴절형을 담당하는 TP의 T의 속성에서 매개변인이 일어난다. 그래서 Chomsky(2013, 2014)는 T의 강/약 매개변인을 설정한다. 즉 영어의 T는 약하므로 주어가 TP Spec으로 이동하며 이탈리아어의 T는 강하므로 주어가 TP Spec으로 이동 안 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Holmberg & Roberts(2014)는 보편문법에 매개변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은 보편문법의 일부분에 일부자질(형식자질)이 지정되지 않아서(underspecified)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는 매개변인이 보편문법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문법의 일부형식자질의 지정여부로 나타난다.

- (10) We submit that the simplest, arguably the most minimalist view of syntactic variation is that small parts of UG are under-specified and that the inherent

7) Parametric variation is restricted to the lexicon, and insofar as syntactic computation is concerned, to a narrow category of morphological properties, primarily inflectional (Chomsky, 2014, p. 9).

computational conservatism of the learner interacts with the Primary Linguistic Data(PLD) in such a way as to impose a structure on the space of variation that under-specification creates (Holmberg & Roberts, 2014, p. 63).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보편문법에도 언어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 연구도 이 주장에 찬성한다. 매개변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보편문법안의 자질의 지정여부로 언어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보편문법의 크기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 문법과 최소주의에서 동사이동에 관련된 매개변인 접근법들을 다음과 같다.

- (11) a. AGR의미역차단(AGR θ -role Blocking) 매개변인 (Pollock, 1989)
- b. Agr⁻¹ 매개변인 (Roberts, 1993)
- c. 외현적/내재적 매개변인 (Chomsky, 1991)
- d. 복사발화(Copy Pronunciation) 매개변인 (Groat & O'Neil, 1996; Hosono, 2019)
- e. T의 강약(Strong/Weak T) 매개변인 (Chomsky, 1993, 2014)
- f. 범주지정(Specified to Category) 매개변인 (Kim, 2019)

(11a,b)는 GB의 모델에서 나타난 매개변인이고 (11c)는 Chomsky(1991)의 모델에서 나타났으며, (11e)는 Chomsky(1993, 2014)에서 나타났으며, (11f)는 Kim(2019)에서 나타난 모델이다. 또한 이러한 매개변인들은 다 V-to-T동사이동을 설명하므로 보편문법에서 이러한 매개변인을 다 수용한다면 그만큼 중복적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에 적용된 매개변인 접근법 중 어떤 설명법이 가장 잘 설명하는지 비교, 조사할 필요가 있다.

3.2. 매개변인들의 적용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은 V와 T의 관련된 모든 어순들을 다 보여주고 동사도 굴절 동사와 일반동사가 다 함께 사용된다. 즉 굴절동사가 V-to-T이동을 하는 'spoke not' 어순, 굴절동사가 이동하지 않는 'not spoke' 어순, 부정문에서 조동사 do가 이동하는 'did not speak' 어순, 긍정문에서 do동사가 이동하는 'did speak' 어순 등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초기중세영어의 동사구 어순에 따라 각 매개변인 접근법들이 다음 5가지를 잘 설명하는지 비교분석하려한다.

- (12) a. V-to-T이동 설명 ('spoke not')
- b. V-to-T이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not spoke')
- c. 부정문 V-to-T이동의 do동사 출현이유 ('did not speak')

- d. 궁정문 V-to-T구문의 'do' 동사의 출현이유 ('did speak')
- e. 굴절형동사와 일반동사의 V-to-T이동의 준수여부 (풍부한 굴절가정(Rich Agreement Hypothesis: RAH))

최소주의는 (9)의 언어구조를 사용하므로 보편문법도 제 3의 요인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중복이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12)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이 있다면, 그 매개변인만 보편문법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3.2.1. AGR의미역차단 매개변인 (Pollock, 1989)

의미역 차단 매개변인은 이동한 동사는 그 흔적으로부터 의미역을 전달받는데 그 사이에 있는 AGR이 그 의미역 전달의 차단여부를 결정하는 매개변인이다. Pollock(1989)은 동사가 이동하여 연쇄(chain)를 형성하면(V...t), 이동한 동사는 그 흔적에게서 의미역(θ -role)을 받는다고 하며, 불어 AGR은 의미역에 투명하여 이동한 동사가 그 흔적에게서 의미역을 전달받음으로 동사이동(V-to-T)되고, 영어 AGR은 불투명하여(opaque), 동사의 의미역이 이동한 동사로 전달되지 못하여 동사이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13) a. 불어[TP T [_{AGR}P Agr_(transparent)] [VP V]]]
- b. 영어[TP T [_{AGR}P Agr_(opaque)] [VP V]]]

그래서 Pollock(1989)는 의미역 전달에 대한 AGR의 차단/불차단 매개변인으로 동사이동을 설명하였다. 또한 영어의 have/be/do동사는 의미역이 없어서 AGR의 의미역 차단에 상관없이 V-to-T이동을 한다. 이 매개변인을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기준인 (12)에 적용해 보면, 우선 동사 이동하는 'spoke not'의 AGR이 의미역을 차단하지 않아 동사가 이동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논문에서 T(시제)는 운용자이므로 동사와 결속하므로 V-to-T이동한다고 언급하므로 V-to-T이동이유를 설명한다(12a O). 한편 'not spoke' 어순처럼 V-to-T이동되지 않는 이유는 AGR이 의미역을 차단하여 동사가 이동하지 못한다고 설명된다(12b O). 그러나 굴절형동사 'spoke'가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하지 않기도 하므로 굴절형에 따른 이동여부(RAH)는 설명하지 못한다(12e X). (12d)인 조동사 have/be/do동사의 이동 설명도 문제점이 있다. Pollock(1989)은 have/be/do동사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의미역을 갖지 않아 AGR 범주의 차단여부와 관계없이 V-to-T이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14)의 예처럼 have/be동사는 구문에서 자체의미를 가지므로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없다.

- (14) a. There is a man in the room
- b. John has not lost his mind.

(14a)에서 be동사는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Lasnik(1994)에 의하면 분할격(partitive case)을 가진다. (14b)의 have동사도 현재완료의 의미를 가지므로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Pollock(1989)의 매개변인은 (12d)를 설명할 수 없다(12d X). 또한 긍정문에서 do동사의 이동도 설명할 수 없다(12e X).

3.2.2. Agr¹매개변인

동사의 굴절어미가 풍부하면 V-to-T이동이 되고, 풍부하지 않으면 V-to-T이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명한 풍부한 일치가정(Rich agreement hypothesis)으로 잘 알려져 있다 (Bobaljik and Tháinsson, 1998; Kosmeijer, 1986; Platzack & Holmberg, 1989; Rohrbacher, 1994; Vickner, 1994 등등).

(15) 각 언어의 ‘throw’굴절어미 (Roberts, 1993, p. 266)

	German	Icelandic	French	Danish	English
1sg	werfe	kasta	jette	kaster	throw
2sg	wirfst	kastar	jettes	kaster	throw
3sg	wirft	kastar	jette	kaster	throws
1pl	werfen	köstum	jetons	kaster	throw
2pl	werft	kastiö	jetez	kaster	throw
3pl	werfen	kasta	jettent	kaster	throw

(15)에서 풍부한 동사 굴절어미를 보여주는 German, Icelandic, French는 V-to-T언어들이며 빈약하거나 아예 굴절어미를 보여주지 않는 Danish나 English는 V-to-T이동이 되지 않는 언어들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Roberts(1993)는 주어/동사가 풍부한 굴절형을 나타내는 언어는 굴절어미를 나타내는 Agr¹의 기능범주를 가지므로⁸⁾ 동사가 굴절어미와 결합하고자 V-to-Agr이동이 되고, 주어/동사가 빈약한 굴절형을 나타내는 언어의 Agr은 그냥 Agr로 굴절어미가 없어서 동사이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Agr¹매개변인에 따르면 구문에서 Agr¹을 가지면 굴절된 동사임을 알 수 있고 일반 Agr을 가지면 일반동사임을 알 수 있다.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과 비교해보면, 이 Agr¹매개변인은 굴절동사가 이동하는 ‘spoke not’ 어순을 잘 설명하지만(12a O), 굴절동사가 V-to-T이동하지 못하는 ‘not spoke’ 구문은 설명하지 못한다(12b X). 또한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왜 do동사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8) ‘Rich’ agreement is a manifestation of Agr¹.(Roberts, 1993, p. 256).

수 없다(12c, d X). 비록 조동사 do도 일반동사와 달리 굴절되므로(Ash & Simpson, 1992, p. 285)⁹⁾, V-to-T이동은 가능하나 왜 ‘did not speak’구문과 ‘did speak’에서 do동사가 나타나지 설명하지 못한다. 굴절형을 가진 동사는 이동하고 굴절형이 약한 동사는 이동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풍부한 일치과정은 잘 지켜진다(12e O). 하지만 이 매개변인은 이론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가진다. 첫째는 풍부한 굴절어미로 V-to-T이동이 성립한다는 개념 자체가 최소주의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는다. 풍부한 굴절어미의 생성은 어형부에서 나타나고 V-to-T이동은 통사부에서 적용된다. 그런데 언어도출은 통사부 이후에 어형부가 적용되므로 굴절어미의 상태를 그보다 앞선 단계인 통사부에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위 설명은 최소주의 언어구조에 부합되지 못한다. 둘째로 언어습득자가 한 구문에서 굴절어미가 풍부하여 AGR¹을 가지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문장 외에 그 언어의 주어 동사의 모든 인칭/수일치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굴절어미가 풍부한지 안한지 알 수 있다(Bobaljik & Thráinsson, 1988). 따라서 그 구문에서 사전에 굴절어미가 풍부한지 빈약한지 알 수 없다.

3.2.3. 외현적/내재적 매개변인 (Chomsky, 1991)

이 매개변인은 GB에서 나타난 매개변인으로 당시 문법구조는 심층구조(deep structure)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가 있었고 언어수행기관(performance system)과 접합부분을 이룬 LF와 PF가 존재하였다. 이 구조에서 동사이동은 언제나 발생하고(move- α), 표면구조에서 동사 V가 T로 이동하면 문자화이전에 발생한 이동으로 외현적(Overt)이동이 되고, 문자화 이후인 LF에서 이동하면 내재적(Covert)이동이 된다. Chomsky(1991)에 따르면, 이동하면 그 흔적을 결속해야 하므로 언제나 하강이동(lowering)보다는 상승이동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도출의 경제성(economy)에 따라 상승이동은 그 자리에서 흔적을 결속할 수 있으나 하강이동은 그 자리에서 선행사를 결속하지 못해 LF에서 다시 상승이동을 하여 그 흔적을 결속하므로 두 번의 이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동사 do는 의미적 내용이 없어서 외현적 V-to-T이동을 한다.

(16) [_{TP} Julie [_T do + _S] [_{NegP} Not] [_{VP} like James]]

영어 일반동사는 LF에서 이동한다. 그런데 구문에서 부정어 not이 있는 (16)의 경우에 부정어 not는 LF에서 의미적 장벽이 되므로 일반동사 ‘like’는 이동할 수 없다. 그런데 조동사 do는 그 의미적 내용이 없기에 부정어 not이 포함된 구문 (16)에서 외현적 V-to-T이동을 한다. 이 매개변인을 (12)의 이동기준에서 판별해보자. 이 매개변인에서 T는 V-자질을 가지

9) 원래 접사 _S가 do동사와 결합되면 dos가 되어야 하나 does로 굴절한다. 따라서 does의 접사 _S는 단순히 접사하강규칙으로 어형소들의 결합이 아니라 do가 스스로 굴절한 형태로 본다.

며, V는 T-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자질 점검하러 V-to-T이동을 한다고 (12a)를 설명한다(12a O). 한편 ‘not spoke’어순에 대하여 영어 일반동사는 LF에서 이동하는데 부정어 not이 장벽이 된다는 설명으로 V-to-T이동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12b O). 한편 부정문에서 영어일반동사는 LF에서 부정어 not가 장벽이 되어 이동하지 못하는데 T의 접사(affix)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의미적 내용이 없는 do가 삽입된다고 설명한다(12c O). 하지만 이번 설명은 긍정문에서의 do동사의 발생은 설명할 수 없다(12d X). 왜냐하면 부정어 not이 긍정문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T의 접사(affix)가 하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o동사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did speak’어순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 매개변인은 굴절형과 관련 없이 설명되므로 (12e)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외현적/내재적 매개변인 설명의 단점으로 첫째 같은 동일한 동사이동 운용이 각각 외현적 통사부와 LF와 같은 다른 층위에서 중복적으로 적용되므로 그만큼 보편문법의 운용이 복잡해진다. 둘째로 최소주의로 들어오면서 자질점검은 각각 그 자질에서 점검되고 이동과 관련이 없어서 V-to-T이동의 설명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3.2.4. 복사발화(Copy Pronunciation) 매개변인 (Groat & O’neil, 1996; Hosono, 2019)

최소주의가 표방하는 복사이론(copy theory)에서, 동사의 이동으로 두 개의 복사(copy)가 성립한다. 즉 이동한 동사가 하나의 복사가 되고 이동하지 않는 동사가 또 다른 복사가 된다. 이런 복사이론에서 Groat & O’Neil(1996)은 동사가 이동하여 두 개의 복사가 나타날 때, PF에서 어떤 복사에 음성자질이 실현되는가에 따라 동사이동의 여부가 정해진다고 한다(Groat & O’Neil, 1996, p. 124). 즉 이 매개변인에서 동사가 이동하면, 그 흔적과 연쇄를 이루는데 문자화이후 PF에서 연쇄 머리에서 음성자질이 발화되면 V-to-T이동되고, 연쇄 꼬리에서 발화되면 V-to-T이동되지 않는다. 한편 기본 가정은 동사가 복사되어 이동될 때 그 음성자질은 같이 복사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 (17) a. V-to-T이동: $[_{TP} T+V_{(PF)} [_{NegP} not [_{VP} V]]]$
 b. No V-to-T: $[_{TP} T+V [_{NegP} not [_{VP} V_{(PF)}]]]$

(17)에서 동사 V의 음성자질(PF)은 이동한 V로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동하는 경우 T에 굴절어미가 있으면, T의 음성자질만 점검하는 강자질(strong feature)을 가져 동사 V가 이동할 때 음성자질도 같이 이동한다. 한편 T가 굴절어미가 없으면, 강자질이 없어서 동사 V는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 음성자질은 이동하지 않은 동사에서 발화되므로 내재적 이동이 된다. 한편 Hosono(2019)도 이런 PF에서 음성자질의 발화에 따라 동사이동이 된다고 하지만 이동원인으로 C에게서 물려받는 시제자질(T-feature)이 있고 동사 V는 비해석성자질 T자질이 있어서 반드시 T로 자질 점검하러 이동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후 PF에서

V-to-T이동은 T로 이동한 V가 음성발화되어 V-to-T이동된 것이며, 영어처럼 이동하지 않는 V가 음성발화되면 동사이동이 없다고 한다. 특히 V-to-T이동에서 T에는 C에게서부터 시제와 일치자질(ϕ -자질)을 물려받기에 T로 이동한 V에서 음성 발화되면 일치자질로 풍부한 굴절어미도 나타나게 되고, 영어처럼 이동하지 않는 V에서 음성 발화되면 굴절어미를 나타내는 T의 ϕ 자질이 없어서 굴절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매개변인을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과 비교해보면, ‘spoke not’ 어순은 이동한 동사 ‘spoke’가 T의 비해석성 자질을 점검하려 이동하므로 (12a)는 잘 설명된다. 그러나 굴절된 동사가 이동하지 않는 (12b)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T에 굴절어미가 있기에 동사가 굴절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굴절된 동사가 있다면 T에 강자질이 있으므로 동사의 음성 발화도 T에서 나타나야한다(12b X). 한편 이런 복사발화 매개변인은 부정문/긍정문의 do동사 삽입을 설명할 수 없다. V의 음성자질이 PF에서 연쇄의 머리어에서 발화되는지 아니면 꼬리어에서 발화되는지 만 설명할 뿐, 원칙적으로 do동사의 삽입현상 자체를 다룰 수 없다(12c X, 12d X) 또한 굴절형과 동사이동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12e)도 설명할 수 없다(12e X). 이 주장의 이론내적 문제로 동사이동이 T의 비해석성 자질을 점검하고자 이동한 다지만 최소주의로 오면서 반드시 T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자질점검은 그 자리에서 점검되지 반드시 이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 매개변인에서 자질점검하기 위해 이동해야한다는 기술(stipulation)이 필요하다. 둘째로 복사이론에서 복사가 되면 음성자질도 함께 모든 것이 복사되어야 한다. 만약 음성자질만 복사되지 않고 음성자질의 이동으로 설명한다면 불법조작금지(no tempering condition)에 위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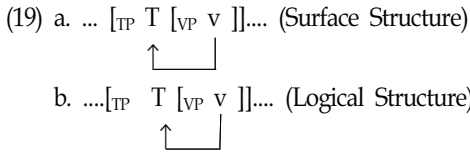
3.2.5. T의 강/약 매개변인 (Chomsky, 1993, 2014)

T의 강/약 매개변인은 모든 어휘범주는 자질로 구성되고 모든 동사는 굴절된 체로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가정하고 TP의 T의 강/약이 존재하여 T가 강하면 동사가 이동하여 T와 자질 점검하므로 V-to-T이동이 되고, T가 약하면 V-to-T이동은 통사부에서가 아니라 LF에서 자질 점검되어 동사이동이 되지 않는다.

(18) a. spoke not

b. [TP T(Past) [NegP not] [VP speak ...]

Chomsky(1993)의 주장은 T-자질이 강하면 PF에서 이 강자질이 계속 남아있기에 이 도출을 붕괴시키므로 반드시 외현적 통사부에서 T-자질이 점검되어 없어져야 한다. 한편 T가 약한 경우는 지연원칙(procrastinate¹⁰)으로 LF에서 동사이동이 일어나므로 표면적으로 동사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매개변인을 초기중세영어 동사어순과 비교해보면 ‘spoke not’어순은 T의 자질이 강하여 통사부에서 V-to-T이동이 되어 외현적 이동으로 설명된다(12a O). 그러나 ‘not spoke’어순은 내재적 이동으로 T의 자질이 약하여서 이동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초기중세영어에서 동사이동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경우 T의 강/약이 바뀌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12b)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12b X). 또한 T의 강약에 의한 동사이동 설명은 조동사 do동사의 삽입현상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다(12c X, 12d X). Chomsky(1993)도 do-삽입만을 말하지 왜 do-동사가 삽입되어야 하는지 언급은 없다. 굴절형에 따라 T의 강약이 정해져 동사가 이동하므로 (12e)는 잘 설명된다. 이후 최소주의에서 동사이동은 통사부 이동이 아니라 PF이동으로 치부되어 더 이상 논의는 없다. Chomsky(2014)는 명찰(labeling)이론으로 동사이동은 v*와 짝병합(pair merge)만 한다고 한다.¹¹⁾ Chomsky(1993)의 이론적 단점으로 첫째 영어의 T의 자질은 약하다고 하는데 have/be/do동사들은 외현적 이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로 언어 이론적 문제로 T의 강/약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또는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치 개념이 필요하다.¹²⁾

4. 범주지정 매개변인과 다른 매개변인 접근법들과의 비교

4.1. 범주지정 매개변인(Category-Specified Parameter)

범주지정 매개변인은 김대익(2019)에서 제안된 것으로 (9)의 언어구조에서 매개변인도 제 3의 요인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해져 최적화되므로 매개변인이라는 또 다른 기제를 두지 말고 ‘자질의 지정’ 여부로 매개변인을 대체한다. 즉 보편문법 안에서 나타나는 언

10) delay an operation until LF whenever possible, i. e.,

whenever delaying would not cause the derivation to clash (Chomsky, 1991).

11) 짝병합에 관한 명찰이론의 연구로 R. Kim(2019)을 참조

12) 하지만 최근 Chomsky(2014)는 여전히 강/약 매개변인을 선호하고 있다. Chomsky(2014: 9)의 매개변인은 언어가 실제로 표현되는 부분 즉 굴절과 관련된 범주에만 국한되어서 T의 강/약에 따라 명찰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Chomsky(2014)는 동사이동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변화는 특정매개변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T와 V에 ‘범주지정 여부(Specified to Category)’에 따라 생기는 현상으로 가정한다. 최소주의에서 범주에 지정되어야 어휘 X는 최대투사범주 XP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X는 범주(Category)에 지정되기에 지정어가 병합되면, 자연스레 최대투사범주 XP로 된다. 그래서 현대영어에서 C는 CP가 되고, N은 NP가 되고 P는 PP, Adj는 AdjP로 나타나지만 T와 V는 범주에 지정되지 않아 각 주어나 목적어가 ϕ 자질로 자질공유(feature sharing)을 통해 최대투사범주가 된다(Chomsky 2014). 이렇게 범주에 지정되면, 각 범주에 어휘범주들이 위치하지만, 범주에 지정되지 않으면, 어휘범주들이 이 범주에 위치할 수 없다. 본 글에서 초기중세영어에서 T와 V의 범주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¹³⁾

(20) 초기중세영어의 T와 V는 범주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20)에서 T와 V의 범주가 지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범주가 되지 못하는 어휘요소만 병합된다. 그래서 범주에 지정되지 않은 T에는 자기 스스로 범주가 되지 못하는 접사(affix)가 기저 생성되며, 범주에 지정되지 않은 동사 V에는 범주가 결정되지 않은 어근(root)이 기저 생성된다. 그런데 (20)처럼 범주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보편문법에서 다음 (21)과 같은 T와 V의 조합이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21) a. [+T, +V], b. [+T, -V],
 c. [-T, +V], d. [-T, -V]

한편 최소주의에서 범주를 나타내는 자질은 형식자질(formal feature)이다. (21a)처럼 T와 V가 범주에 지정되면, 여기에 병합되는 동사범주는 범주와 관련된 완전한 형식자질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완전한 형식자질이란 어휘범주자질(categorial feature), 일치자질(ϕ -feature), 격자질(case feature)을 모두 가지는 경우를 말하므로(Chomsky, 1995, p. 231), 본 글에서 굴절형을 가진 일반동사(V+ ϕ)가 해당된다. 동사원형은 일치자질이 결여되어 있고 조동사는 격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범주에 지정되면, 이 범주에는 완전한 형식자질을 다 가진 굴절된 동사만이 병합될 수 있다.

13) 한편 Goto(2016, p. 4)도 현대영어 T와 V는 원래 범주에 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Chomsky(2014)도 영어의 V에는 어근인 R(Root)만이 병합된다고 한다. 원래 어근은 범주에 지정되지 않은 범주이다(Bore, 2014). 예로 simple이라는 어근에서 -ify가 병합되면 동사가 되고 -ification과 병합되면 명사가 된다. 그래서 현대영어의 T에는 어휘범주가 아니라 접사(affix)가 기저 생성되고 현대영어의 V에는 범주가 지정되지 않은 어근 R이 기저 생성된다.

(22) T와 V가 범주에 지정되면, 굴절동사(V+ ϕ)만이 병합만 허용된다.

현대영어에서 have/be/do동사는 격자질을 가지지 않아 완전한 형식자질을 가진 어휘가 될 수 없어 범주가 지정된 T(+T)에 나타날 수 없다. 한편 현대영어의 T는 범주에 지정되지 않아(Goto, 2016, p. 4), 격자질이 없는 have/be/do나 접사 -s가 나타난다. 또한 현대영어의 V는 범주에 지정되지 않아 굴절동사가 나타날 수 없고 어근(root)이 나타난다.

초기중세영어는 T와 V의 범주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T]와 [+V]의 4가지 구문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서 동일한 의미의 다른 동사위치가 나타난다. ‘spoke not’의 어순은 T와 V가 범주에 지정된 [+T, +V]구조에서 굴절동사 spoke(v+ ϕ)¹⁴가 V에 병합되어 T로 이동한 구문이다(12a O). ‘not spoke’어순은 [-T, +V]구조에서 도출된다. 즉 V가 범주에 지정된 [+V]이므로 굴절동사 spoke(v+ ϕ)가 V에 병합되지만, T가 범주에 지정되지 않은 [-T]이므로 굴절동사가 T로 이동할 수가 없어서 ‘not spoke’ 어순이 도출된다(12b O).¹⁵ 그다음 ‘did not speak’와 ‘did speak’는 [-T, -V]구조에서 도출된다. V가 범주에 지정되지 않아 어근 speak가 V에 병합되고, [-T]도 범주에 지정되지 않아 굴절동사가 병합되지 못하고, 동사가 굴절형을 가지지 않아 굴절형의 정보가 T에 표시된다. 그래서 T에 스스로 범주가 될 수 없는 굴절어미(접사)나 ϕ (과거시제 포함)만 기저 생성된다. 여기서 speak가 T로 이동하면, T에도 굴절어미(접사) 및 ϕ (과거시제 포함)가 존재하므로 speak+ ϕ 의 형태가 되어 굴절된 완전한 형식자질을 가진 굴절동사가 T에 병합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 T는 [-T]여서 굴절동사인 speak+ ϕ 가 병합될 수 없다. 그래서 V에 있는 speak가 T로 가지 못하고 보편문법에서 일반동사의 어휘범주자질만 복사된 do동사가 삽입되어 ‘did not speak’와 ‘did speak’의 구문유형이 나타난다.(12c O, 12d O).

한편 초기중세영어의 보편문법에서 범주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T]와 [+V]조합이 나타났던 초기중세영어와 달리 현대영어에서 [-T]와 [-V]로 범주가 지정되므로 현대영어는 굴절동사가 V에 병합되지 못한다. 그래서 굴절어미를 상실하면서 어근의 형태로 V에 병합되고, 상실된 굴절형은 [-T]에 ϕ 라는 접사자질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접사와 결합하기 위해 조동사나 do동사가 [-T]에 위치하는데 그 이유는 이 동사들은 완전한 형식자질을 가진 범주가 아니라서 [-T]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범주지정 매개변인의 장점은

14) 초기중세영어의 speak의 과거는 spack로 굴절형을 가지고 있다.

15) 본 연구는 C에서 T로 ϕ 가 전승되면 T와 V가 자질점검(feature checking)한다고 가정한다. [-T, +V]구문에서 T의 ϕ 와 굴절된 동사(V+ ϕ)가 자질점검하면, ϕ - ϕ 점검으로 T의 ϕ 는 접사(affix)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V가 굴절된 동사로 접사를 가지기 때문에 자질점검으로 T의 ϕ 자질의 정보가 굴절된 동사(V+ ϕ)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T, -V]에는 T의 ϕ 가 있지만 [-V]에는 ϕ 가 없는 어근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ϕ - ϕ 자질점검이 되지 않아 T의 ϕ 자질의 정보가 반드시 구문 상에 나타나야 하므로 접사가 된다. 그래서 [-T, -V]구문에서 [-T]의 ϕ 는 접사가 되어 do동사가 이동하여 결합된다고 생각된다.

보편문법 안에 따로 매개변인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에 대한 지정여부로 기존의 매개변인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최소주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4.2. 각 매개변인 접근법들의 설명력 비교

(23)

	'spoke not'	'not spoke'	'did not speak'	'did speak'	RHA
AGR 의미역	○	○	X	X	X
AGR ⁻¹	○	X	X	X	○
외현적/내재적	○	○	○	X	X
복사발화	○	X	X	X	X
T의 강약	○	X	X	X	○
범주지정	○	○	○	○	○

위 매개변인 설명력을 살펴보면, 범주지정 매개변인이 가장 잘 초기중세영어 동사구 어순을 모두 잘 설명한다. 따라서 보편문법에 따로 매개변인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주지정에 대한 지정여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언어변화를 설명한다면 언어이론 설명력에서 낮다고 평가된다.

5. 결론

초기중세영어는 V-to-T이동에 대한 모든 어순을 다 보여준다. 굴절된 동사가 이동하기도 하고(spoke not), 굴절된 동사가 이동하지 않기도 하고(not spoke), do동사가 부정문(did not speak)이나 긍정문(did speak)에 나타난다. 이런 다양한 초기중세 영어구문의 V-to-T이동을 대상으로 그동안 V-to-T를 대상으로 동사이동을 설명하려는 기존의 매개변인 주장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잘 설명하는지 판별하고자 하였다. 원래 생성문법 및 최소주의에서 보편문법 안에 매개변인을 두어 이러한 동사이동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최소주의로 들어오면서 보편문법은 자연법칙에 따라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중복적이지 않다고 알려진 후 기존 매개변인의 선행연구를 다 받아들인다면 그 만큼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동안 나타난 매개변인 설명 중에서 범주지정 매개변인 설명이 V와 T와 관련된 동사구어순을 가장 잘 많은 설명을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익. (2019). 동사이동과 비국면범주의 매개변인. *현대문법연구*, 102, 31-51.
- 김신호. (2019). 고대/중세/현대-프랑스어 인용도치구문의 매개변인에 대한 비교연구. *언어과학*, 26(2), 1-24.
- 이정식. (2016). 최근 최소주의의 보편문법과 국어에 대한 시사점. *언어학*, 24(2), 127-147.
- Baker, M. (1995). *The polysynthesis parame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ttye, A., & Roberts, I. (1995). *Clausal structure and language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an, M. C. (1983). *The development of word order patterns in Old English*. London: Croom Helm.
- Bobaljik, J., & Thráinsson, H. (1988). Two heads aren't always better than one, *Syntax* 1, 37-71.
- Borer, H. (2014). The category of roots. In A. Alexiadou, H. Borer, & F. Schäfer (Eds.), *The syntax of roots and the roots of syntax* (pp. 112-1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nale, M. (1978). *Word order change in Old English: Base reanalysis in generative gramma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Canada.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Unpublished manuscript, MIT.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Unpublished manuscript,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pp. 89-157).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r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1-53).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5). *On phase*. Unpublished manuscript, MIT.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Chomsky, N. (2014).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Unpublished manuscript, MIT.
- Denison, D. (1995). *English historical syntax*. New York: Longman Publishing.
- Gelderen, E. van. (1993). *The rise of functional categor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Groat, E., & Oneil, J. (1996). Spell-out at the interface: Achieving a united syntactic computational system in the minimalist framework. In W. Abraham, S. D. Epstein, H. Thrainsson, & C. J-W. Zwart (Eds.), *Minimal ideas: Syntactic studies in the minimalist framework* (pp. 113-139). Amsterdam: John Benjamins.
- Holmberg, A., & Roberts, I. (2014). Parameters and the three factors of language design. In C. Piccolo (Ed.), *Linguistic variation in the minimalist framework* (pp. 61-8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rnsby, D. (2014). *Linguistics: A complete introduction* (Teach yourself®).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Hosono, M. (2019). *Verb movement in narrow syntax*. Unpublished manuscript, Keio University.
- Huang, C.-T. James. (1982). *Logical relation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Huang, C.-T. James. (2014). Syntactic variation and parametric theory. Unpublished manuscript, National Chung-Cheng University.
- Kemenade, A. van. (1987). *Syntactic case and morphological case in the history of English*. Dordrecht: Foris.
- Kim, R. (2019). Labeling and moving adjunction structur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125-147.
- Kosmeijer, W. (1986). *The status of the finite inflection in Icelandic and Swedish*. Trondheim: University of Trondheim.
- Kroch, A., & Taylor, A. (2000). Verb-object order in Early Middle English. In S. Pintzuk, G. Tsoulas, & A. Warner (Eds.), *Diachronic syntax: Model and mechanism* (pp. 132-16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S. (2015). The SVO hypothesis in Korean word order variation, head movement and lineariz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4), 63-90.

- Lightfoot, D. (1979). *Principle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ghtfoot, D. (1992). *How to set parameters: Arguments from language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 Pintzuk, S. (1999). *Phrase structures in competition: Variation and change in Old English word order*. New York: Garland.
- Platzak, C., & Holmberg, A. (1989). The role of Agr and finiteness in Germanic VO languages. *Working Papers in Scandinavian Syntax*, 43, 51-76.
- Pollock, J. Y. (1989). Verb movement, UG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Rizzi, L. (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 Roberts, I. (1993). *Verbs and diachronic syntax: A comparative history of English and French*. Dordrecht: Kluwer.
- Roberts, I. (1997). Directionality and word order in the history of English. In A. Kemenade & N. Vincent (Eds.), *Parameters of morphosyntactic change* (pp. 397-42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rbacher, B. (1999). *Morphology-driven syntax: A theory of V to I raising and pro-drop* (Linguistik Aktuell Linguistics Today). Amsterdam: John Benjamins.
- Stowell, T. A.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Traugott, E. (1972). *A history of English syntax*.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Vikner, S. (1994). Finite verb movement in Scandinavian embedded clauses. In D. Lightfoot & N. Hornstein (Eds.), *Verb movement* (pp. 117-1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isser, F. T. (1969-74). *A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3 volume set). Leiden: E. J. Brill.

김대익

48015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영산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조리예술학부 동양조리과 교수

전화: (051)540-7152

이메일: daeik@ysu.ac.kr

Received on October 30,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7, 2020

Accepted on December 24, 2020